

# “독립 함성이 들려오면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오”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오.”

1909년 10월 하얼빈역에 올린 총성은 대한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 안중근 의사의 이듬해 뛰순감옥에서 서른살의 짧은 생을 마쳤지만 조국의 해방과 평화를 향한 신념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의거 117년, 순국 116년을 맞는 올해 그의 유해를 찾기 위한 국가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안중근의 삶과 내면을 춤으로 풀어낸 무대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창작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사진)이 22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 오른다. 공연은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3월 7~8일), 대구(3월 12일)로 이어진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열렸던 무대가 영·호남을 잇는 순회 형식으로 확장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사)안중근의사승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 주

안중근 의거 117년·순국 116년

M발레단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22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최. M발레단 주관, 국가보훈부 후원.

공연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1910년 2월의 뛰순감옥에서 시작한다. 죽음을 앞둔 안중근은 두려움과 그리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변민한다. 무대는 그의 기억을 따라 과거로 거슬러 오른다. 어머니 조마리아의 당부, 아내 김아려와의 흔례 장면이 이어지며 ‘영웅’ 이전에 한 아들이자 남편이었던 인간 안중근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후 무대는 연해주 의병 활동과 단지동맹, 하얼빈 의거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차례로 그린다. 전개는 핵심 장면 위주로 또렷하게 이어져 인

물의 선택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구성됐다.

무대의 백미는 전투 장면. 독립군의 결의를 담은 남성 군무는 힘 있고 속도감 있게 펼쳐지며 긴 장감을 끌어올린다. 올해 공연에서는 일본군 역할을 보강해 장면의 규모와 밀도를 높였다. 독립군의 결의를 담은 남성 군무가 빠른 흐름으로 펼쳐지며 경계심을 높인다. 일본군 역할을 보강해 장면의 규모를 키웠는데, 서로 맞부딪히는 동작과 빠르게 교차하는 대형 변화가 당시의 긴박함을 전한다.

천국과 꿈을 상징하는 장면에서는 여성 군무가 분위기를 전환한다. 부드럽고 절제된 움직임으로 상실의 감정과 위로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동료를 잃은 뒤의 죄책감과 흔들림, 다시 일어서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담겨 심리를 표현한다.

지난해 추가된 프로그램 ‘동양평화론’ 장면 역시 주목할 만하다. 독립투사를 넘어 안중근 의사

의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인물의 생각과 철학을 짧지만 인상적으로 정리했다.

작품은 2015년 첫선을 보인 이후 예술의전당과 대한민국발레축제 등 주요 무대를 거치며 11년간 꾸준히 내실을 다져왔다. 한 번 무대에 올리고 사라지는 단발성 공연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왔다. 창작 발레가 긴 시간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대표 레퍼토리로 정착한 것은 드문 사례다.

특히 지난해 4월 별세한 문병남 M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의 안무작이라는 점에서

도 의미가 깊다. 구례 출

신인 그는 국립발레

단부예술감독

을 지내며 한

국적 서사를

발레 언어로 풀

어내는 작업을 이어

왔다. 이 작품 역시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역사적

소재를 한국적 정서에 맞게 혼

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영은 M발레단 단장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지금, 작품이 지닌 의미와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낀다”며 “그의 애국정신과 평화를 향한 뜻이 무대를 통해 오롯이 전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창작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이 22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에서 펼쳐진다. 안중근 역의 윤전일 발레리노  
모습.  
(M발레단 제공)

##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안녕과 희망 기원”

광주·전남 여류 서예 작가들, 입춘방 써주기 행사 성료

수연회를 이끌고 있는 이점숙 서예가와 광주·전남 여류 서예 작가들이 입춘을 앞두고 지난 3일 노인건강타운에서 ‘2026 福’를 부르는 입춘방 써주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입춘방 써주기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김용덕)이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어르신 정서 함양을 위해 개최했다.

서예가들은 회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새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 大吉 建陽多慶), ‘국태민안 가급인족’(國泰民安 家給人足),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 등 전통 입춘방을 직접 써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여류 서예 작가 6인(이점숙, 안정숙, 김신자, 임경초, 임명순, 나숙희)은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실력 있는 작가들이다. 이들은 어르신들이 우리 고유의 서예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을 제공했다.

김용덕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은 “입춘방 써주기 행사는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전통문화와 현대적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 여류 서예가들이 입춘을 맞아 3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입춘방 써주기 행사에 참여했다. 입춘방 문구를 들고 있는 작가들과 어르신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제공)

## 민족시인 김남주의 문학 정신을 기리다

제32주기 추모식… 7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민족시인 김남주(1946~1994·사진) 제32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오는 7일 오전 11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김남주기념사업회(회장 김경운)는 5일 김남주 시인 32주기 추모식을 오는 7일 개최한다고



광주민청학련동지회가 후원한다.

김경운 기념사업회장은 “올해로 벌써 김남주 시인의 추모식이 32회째를 맞이했다”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민족시인’, ‘전사시인’ 김남주의 울골은 시 정신과 민중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들 곁에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 출신의 김남주 시인은 70·80년대 유신정권과 독재정권 탄압에 맞서 싸운 ‘전사시인’이었다.

해남중을 졸업하고 광주제일고에 입학했지만 획일적인 입시 교육에 반발, 자퇴를 하고 경정고시로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1974년 ‘창작과 비평’(여름호)에 ‘진흔기’ 등을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펼쳤다. 유고시집 ‘나와 함께 모든 노래가 사라진다면’, 시선집 ‘꽃 속에 피가 흐른다’ 등이 간행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